강진 성전산단에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 구축

한국자동차연구원 공모 주관
180억 투입…고효율 부품 개발
생산성 향상·글로벌시장 진출

강진군 성전산단 일원에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인프라가 구축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분야 기반 조성 공모사업 저탄소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 과제에서 영암 한국자동차연구원 프리미엄자동차 연구센터 내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2028년까지 4년 동안 180억원(국비 77억·지방비 103억)을 투입해 강진 성전산단 일원에 연속 형단조기와 스피닝 단조기, 시제품 제작 지원동 구축, 기업 지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조는 금속을 두들기거나 가압하는 기계적 방법이다. 평탄한 공구 사이에 소재를 놓고 위치를 바꿔 두들기며 만드는 것을 자유단조라 하고, 일정한 모양으로 요각한 금형 사이에 소재를 놓고 두들겨서 만드는 것을 형단조라 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연비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고효율 부품의 시제작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사업의 핵심은 연속 형단조 설비 도입을 통해 공정자동화와 경량·고강도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조 부품사의 생산성 향상과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자동차 휠 분야에서 생산량이 주조 대비 55% 증가하고, 단조 부품 평균 단가가 68% 감소하며 연매출액 700억원, 일자리 창출 160개 이상이 예상된다. 또 단조산업 전환을 위한 미래차 부품 시제작 기반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의체의 기술지원을 받으며 전후방 산업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 하게 된다.

국내 기업이 수입에 의존하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을 제작할 기반이 구축돼 전남의 미래차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속해 국회와 중앙 부처 방문 등을 통해 국고 건의 활동을 펼쳤고, 강진군은 성전산단 부지를 제공하며 힘을 보태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이 이번 공모 선정의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탄소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기술을 혁신하고 협업을 촉진토록 하겠다"며 "이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 문화향유율 54% 그쳐…증가율은 뚜렷

전남연 "접근성 향상 등 필요"

전남도민의 문화향유율이 50%대 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문화정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 전남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4.3%로, 전국 평균 63.0%, 도 단위 평균 57.5%를 밑돌았다.

세부적으로도 도민의 44.8%가 영화 관람을 꼽았고, 대중음악·연예(콘서트, 거리공연 등)는 14.0%, 미술전시회 관람 3.2%, 뮤지컬 2.5%, 전통예술 2.0%, 문학행사는 1.4%에 그쳤다. 대부분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치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다양성,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도민들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때 '접근성'과 '내용과 수준'을 중요시했다. 관람의 걸림돌로는 주로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시간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응답했다.

반면, 2022년 46.5%이던 문화예술 관람률이 2년새 7.8%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5.1%포인트)을 웃돈 것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추가 지불의사도 뚜렷하다. 도민들은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3.3회 관람, 3만3,000원을 지출했는데,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3만8,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관람 동행자로 배우자, 자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 연인, 부모 형제자매(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동행하는 비율이 59.5%로 전국 평균보다 12.0%포인트 높게 나타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권수빈 부연구위원은 "문화향유율이 전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세부 장르별로는 낮은 수준이고, 지역별 인구 대비 기반시설 수는 상위권이지만 도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린생활권 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복지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임박

▶1면서 계속

통합 이후 두 대학의 정원은 학과 구조조정에 따라 1,894명에서 1,777명으로 줄어든다.

학사 운영은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제도가 함께 운영되며 학제 간 연계도 가능하다.

중복학과의 경우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유사학과로 전과해 3·4학년을 수료할 수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통합대학교의 학과는 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최종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등 3개 대학이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이달 말쯤 이들 대학과 함께 통합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어버이날 행사' 유공자 표창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8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구청장상 부문 유공자 표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정량지표 100% 목표 달성

전남도는 8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지표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정량지표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해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추진성과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종합평가다.

올해는 정량지표(목표달성도 평가) 97개와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17개 등 총 114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정량지표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았던 청사 에너지 절감율과 지방 물가 안정관리 실적,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 우선 구매율 등을 포함한 모든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과 전남도, 시군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이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4년 실적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평가 우수 시군 10곳과 발전 시군 1곳을 선정해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는 8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불고 있는 책 읽기 열풍을 이어가고자 '2025년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역서점 20여곳을 선정, 인문프로그램·독서모임 등 지역서점 특장점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공모는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과 '독서모임 운영 서점'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서점의 기획 역량과 운영 방식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인문프로그램 기획 서점은 서점의 특장점을 살려 책을 중심으로 한 인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횟수는 3회차 이상으로 강연, 북토크, 영화·음악과 같은 타 장르와 협업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 가능하다.

선정된 서점은 신청 내용과 횟수 등에 따라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독서모임 운영 서점은 서점 대표가 직접 5회차 이상의 독서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작가 등 독서 모임의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지원금은 서점당 150만원이다.

공모 신청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062-613-2492)나 광주문화재단 시민생활문화팀(062-670-7447)으로 문의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AI 선도기업 딥엑스·노타, 광주에 둥지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인 딥엑스·노타가 광주에 둥지를 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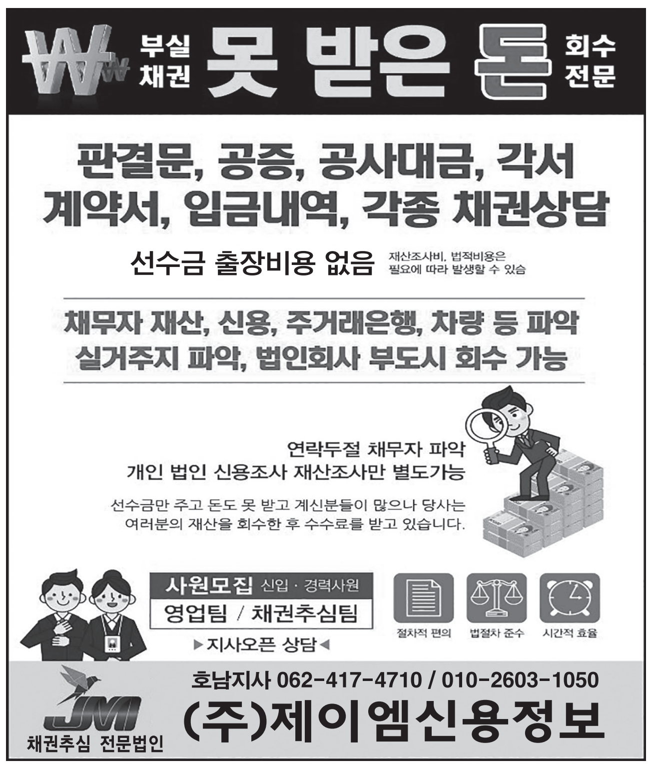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온디바이스AI 선도기업 딥엑스, AI 경량화 전문기업 노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광주 전략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 반도체와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무소 등 설립 △AI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행정적 지원, 전문인력 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딥엑스는 초저전력 반도체설계에 대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온디바이스용 AI 칩을 개발하는 팹리스기업이다.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 비용이 저렴하고 전력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2024 CES'에서 AI 반도체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노타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최적화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반도체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고 소형 기기에서도 원활히 구동되도록 하는 경량화 기술에 강점이 있다. 지난 4월 전 세계 AI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리서치 전문기관 CB인사이트가 선정한 '글로벌 혁신 AI 스타트업 100'에 이름을 올리며 뛰어난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입증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